

부산

: 식민지 조선의 관문 부산항

식민지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들의 첫 번째 도착지는 부산이었고, 시내 상점에서는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팔려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그림엽서이다. 부산 관련 엽서들은 '항도 부산', '부산 명소', '관광의 부산' 등의 표제가 붙으며 제작되었고, 주로 부산부, 부산부 잔교식당과 부산관광협회, 용두산 공원에 위치한 오요시차집(およし茶屋), 박문당서점(博文堂書店), 오죽당서점(吳竹堂書店) 등에서 발행되었다. 여기에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 다이쇼사진공예제작소(大正寫真工藝製作所) 등의 대형 인쇄 출판사가 별도의 부산 관련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사진그림엽서의 주된 소재는 역시 용두산 공원과 용두산 신사로서 거의 모든 사진그림엽서 세트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부산부청, 현 동아대학교 박물관인 경상남도 청사, 히테요시의 조선침략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거성이기도 했던 부산진 성지,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 해변, 해운대 및 동래 온천장 등도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고 있다.



부산 명소 엽서 - 경상남도 도청(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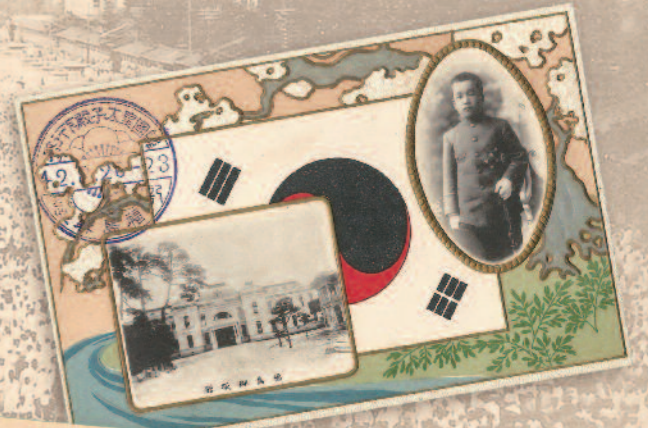


부산 엽서(부산부청 발행) - 용두산 신사



부산 엽서(부산부청 발행) - 송도해수욕장(제1호 해수욕장)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 개소기념
“신동규 컬렉션” 사진그림엽서 전시회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에 새겨진 근대 기억 : 제국주의의 선전과 왜곡

2019년 10월 1일(화) ~ 20일(일)

개관시간 _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_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미술관

주관 _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

주최 _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 연구팀

후원 _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석당미술관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HHII)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 개소기념
“신동규 컬렉션” 사진그림엽서 전시회



전시회를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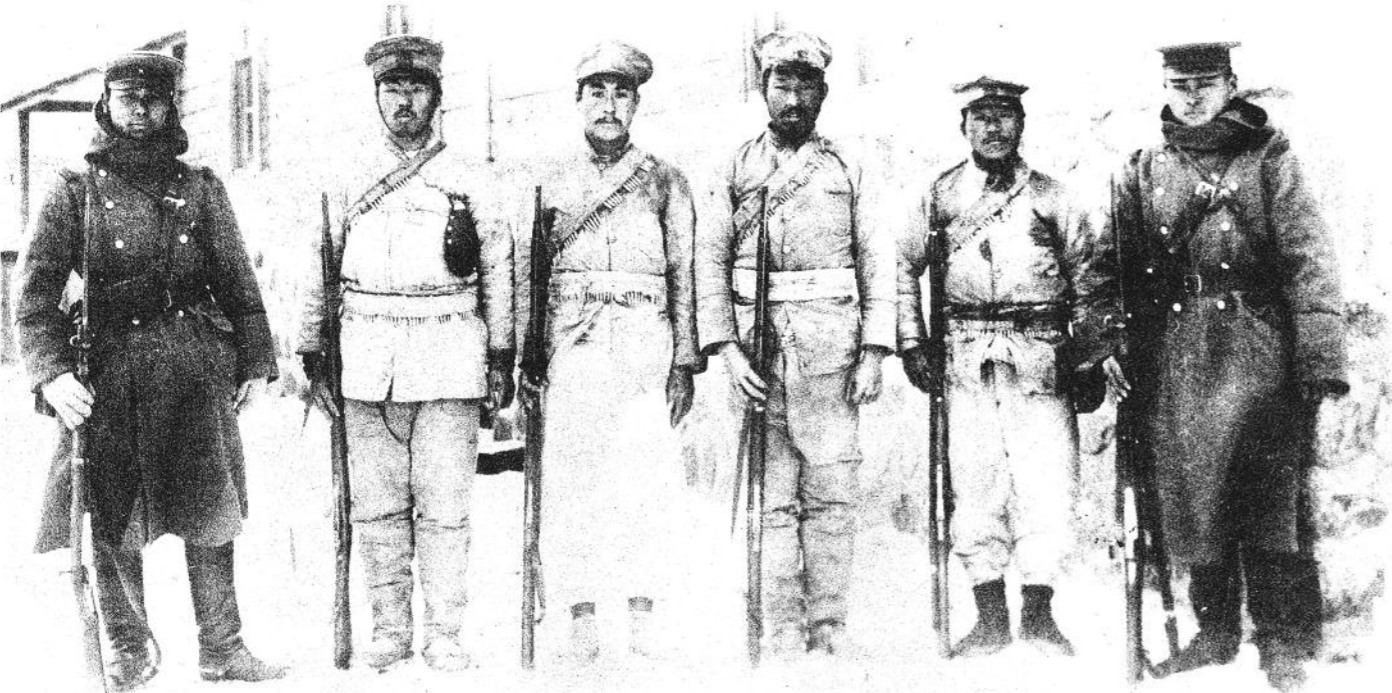
이번 사진그림엽서 전시회는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의 개소 기념으로 동 연구소가 기획한 것으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에 새겨진 근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더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시회의 주제명에 ‘일제침략기’라는 표제를 붙인 것이며, 여기에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포함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그림엽서는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신동규 교수가 소장한 5만여 매의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추린 2,000여 매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①대한제국기, ②한국병합, ③조선총독부 시정(始政)과 통계, ④관제사진그림엽서 및 군대·통신·건축·기타, ⑤조선총독부 철도국, ⑥박람회와 전시회, ⑦조선의 기생과 가요, ⑧금강산, ⑨부산 등 9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전시한다.

한국에서 사진그림엽서는 19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제작·발행되어 근대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1급 사료임에도 그간 학술연구의 부수적인 소재로만 이용되어 왔다. 더욱이 100여년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 엽서들은 보존성이 약하며, 일본이나 국내의 박물관에서조차 쉽게 열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더라도 1매에 수십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집품으로서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해 사장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 엽서들을 학계와 일반에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은 관련 학술연구의 필수적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장되어가는 역사 자료의 영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뜻깊은 일이다. 이에 우리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에서는 현재 이 엽서들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번과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진그림엽서가 다른 무엇보다도 풍부한 가치를 지닌 학술적 기초자료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난 일제침략기의 실상과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 기억 그 자체를 전시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진그림엽서가 시각화된 실증적인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발행 주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발행했는가에 따라 “실증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위장과 멸시관”이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미개와 문명이라는 근대적 시선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내면의 숨겨진 시선과 표현 방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진그림엽서들이 수천만장, 수억장이 팔렸던 당시의 선전 효과를 볼 때, 근대화로 위장한 일본 제국주의의 멸시적이고 침탈적인 시선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점을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관람객들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직후에 토벌대를 구성하였는데, 이 토벌대에 의해 포로가 된 독립군의 모습(중앙 4명, 좌우는 일본군)

대한제국기 1897.10.12~1910.8.28

: 한국병합의 전야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

대한제국기(1897.10.12~1910.8.28)에는 근대 문물의 개혁과 함께 우편제도 개혁도 실시되어 1900년 5월 10일에는 한국 최초의 관제우편엽서(농공상부엽서)가 발행되었다(세계 최초는 1869년 10월 1일 오스트리아 정부 엽서). 엽서는 관제엽서와 사제엽서로 나뉘며, 관제엽서는 다시 관제우편엽서와 관제사진그림엽서, 사제엽서는 사제우편엽서와 사제사진그림엽서로 분류한다.

대한제국 최초의 사진그림엽서(이하 ‘엽서’로 약칭)는 1899년 프랑스인 우체 고문인 클레망세(E. Clémencet)의 건의로 대한제국 정부가 프랑스인 샤를 알레베크(Charles Alévéque)에게 그가 촬영한 한국 관련 사진을 엽서로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여 제작한 이른바 ‘알레베크엽서’가 최초로 알려져 있다. 다만, 1900년 한성 우체총사(郵遞總司)에서 발행한 연하엽서(170mm×110mm)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의 엽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아무튼 이후 엽서의 본질적인 역할인 문자에 의한 정보전달 이외에 사진그림엽서는 명확한 이미지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하여 전쟁 사진과 전승을 기념한 엽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905년 4월 1일 「한국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취극서(取極書)」가 강제 조인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우편통신사업을 일제가 장악하면서부터는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과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엽서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젊은이에게 술 권하는 여성



세계 최초 관제엽서[헝가리 제국]
(1869.11.21.→11.22. 빈 도착, 122mm×86mm)



1907년 황태자 이은과 정미칠적 엽서
(친일파 송병준, 조중응, 이병무, 이완용, 이재근, 임선준, 고영희)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및 이은 황태자
(엽서 위에 날인된 통감의 착임과 경승, 그리고 일본의 한국 통신사업 장악 기념인이 대한제국의 암울함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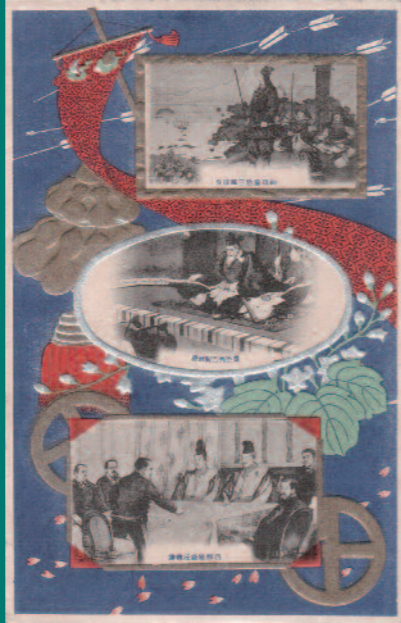


한국병합 1910.8.29

: 한국병합의 왜곡된 합리화와 프로파간다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1910년 8월 22일에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 당하였고, 29일에 조약이 공포·발표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여 발행한 것이 바로 ‘한국병합 기념엽서’이다. 일제에 의해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한합방’, ‘일한병합’, ‘한국병합’, ‘조선병합’ 기념 등의 문구가 엽서에 인쇄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병합을 왜곡 또는 합리화하고 있다. 이들 엽서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왜곡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과거로부터 전승된 한반도 침탈의 왜곡된 역사, 즉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 설화→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 등을 엽서의 도안 소재로 삼아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정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엽서에 새김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엽서에 친일파(을사오적, 정미칠적, 이완용·송병준 등을 도안 소재로 삼아 발행함으로써 한국병합이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병합된 한반도 지도에 ‘신영토’라는 문구를 표기하거나 일본열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영구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음을 선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병합’ 기념엽서 - 한반도 침략 미화
(神功皇后, 豊臣秀吉, 西郷隆盛)

조선총독부 시정(始政)과 통계 1910.8.29

: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를 기념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시정 기념엽서’를 다수 발행하였는데, 10월 1일은 9월 30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관계’가 시행된 날짜로 조선총독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날이기 때문에 기념일로 삼은 것이다. 이 엽서 시리즈는 대략 2~3매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1910년 시정원년, 1911년(1주년)~1920년(10주년), 1925년(15주년), 1935년(25주년), 1940년(30주년)의 10월 1일에 발행되었는데, 14회에 걸쳐 총 38매가 발행되었다. 38매뿐이 안되지만, 이 엽서들은 조선총독부 식민지배의 기본노선에 대한 선전과 왜곡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1급 사료들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일본의 굴절된 역사관과 사상이 이식되어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1910년 시정기념엽서로 전설상의 진구황후와 ‘삼한정벌’ 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일선동조론’을 실제 역사와 같이 표상화시켜 왜곡하고 있다. 둘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조선의 식민지 근대화를 강조하는 고도의 프로파간다 수법이 내재되어 있다. 근대화의 홍보를 위해 관련 사진과 통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엽서에 인쇄된 사진들을 보면, 그 실상은 병합 이전 사진들의 시기와 실체를 왜곡하는 형태로 제국주의의 의도에 따라 이용한 것이다. 즉,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것은 침탈행위를 가장한 일제의 기만이었으며, 이것을 표상화시킨 시정기념엽서는 조선의 식민 지배와 자원 수탈을 자축한 일본 제국주의의 굴절된 자화상이었다.



시정기념(원년) - 가사이궁(香椎宮)과 진구황후(神功皇后)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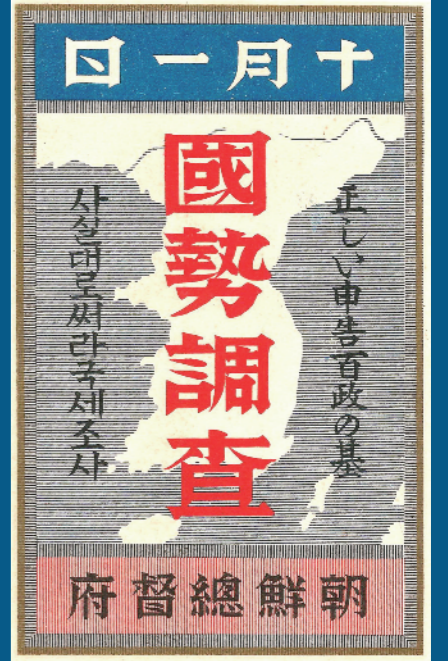
시정5주년기념 - 군산항 미국 집적과목포항 면화 집적 모습
(미곡과 면화 통계)

관제사진 그림엽서 및 군대·통신·건축·기타

: 보여주기 위한 군대, 숨겨진 침략과 수탈

관제사진그림엽서는 당연히 그 소재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며 근대화된 가시적인 성과물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군대와 관련된 것부터 보면, 1906년 영국 무어 중장이 한국에 내항했을 때 통감부에서 이를 기념하여 발행한 3매 세트가 대표적이다.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초상은 삽입하지 않았으며, 영국기·일장기, 태극기·일장기의 엽서는 제작했지만, 영국기·태극기의 엽서는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에 외교권이 없음을 교묘히 선전한 것이다. 이외에 주차군(駐軍), 1930년 사단대항연습기념, 헌납기 조선회와 보국회, 방공연습, 조선군 사령부, 만몽국경수비대 관련 엽서 등이 있다.

그밖에 일제가 한국의 통신사업을 장악한 후 이를 기념한 ‘한일통신사업합방’ 5주년, 1930년 최초의 ‘국세조사기념회엽서’를 비롯해 ‘통신기념일 제정기념’, 조선총독부 체신국 발행의 증정용 엽서 등도 전시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한 엽서는 그 수량도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원산 축항 준공기념’, ‘용산한강교 개통기념’, ‘성진항 수축 기공식 기념’, ‘조선총독부 체신국 분관 낙성기념’ 등인데, 이들 건축 관련 엽서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 근대화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기타 엽서로 ‘조선축산회 엽서’, 조선총독부 ‘교육연구회 엽서’ 등이다.



국세조사기념 - “사실대로 써라, 국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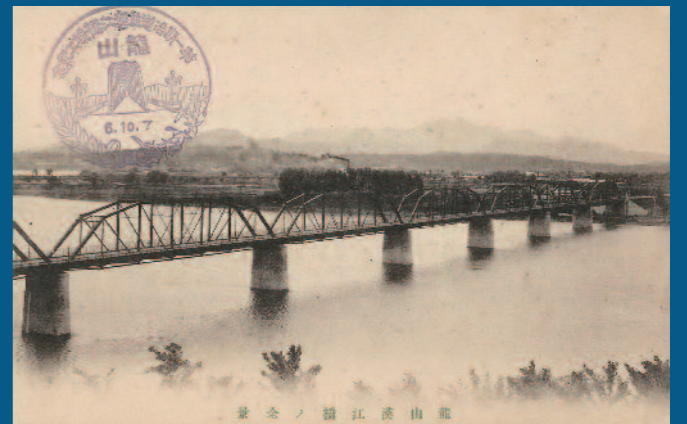
영국지나함대 환영기념 엽서 - 무어중장과 이토 히로부미



영국지나함대 환영기념 엽서 - 영국 국기와 일장기, 통감관저



영국지나함대 환영기념 엽서 - 태극기와 일장기, 신왕성(대한문)



용산 한강교 준공기념 엽서 - 용산 한강교의 전경

조선총독부 철도국

: 관광의 산업화와 침탈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엽서들로 식민지배의 홍보, 관광사업 확장을 위해 발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엽서는 ‘조선의 풍광’ ([그림19]), ‘조선 풍경’ ([그림 20])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사진이나 그림의 도안은 당시 철도선이 지나는 지역의 풍경이나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그림21]), 유명 도시, 금강산([그림22]) 등을 소재로 보통 3~6매를 세트로 발행하였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1910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고, 철도의 관리·운영, 사설 철도, 육상운송 업무 등을 관장하였는데, 1917년 7월 31일에 조선총독부 철도가 남만주 철도에 위탁 경영되면서 철도국 관제가 폐지되어 조선총독부 총독관방에 철도국이 설치되었다. 1919년 8월 20일에 조선총독부 관제개정(칙령 제 386호)에 의해 철도국을 철도부로 개칭하였지만, 1925년 3월을 끝으로 조선총독부 철도의 위탁 운영이 해제되면서 다시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으로 복귀되었다. 한편,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를 운영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획득하였는데, 이렇게 다대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철도국 직원은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비록 조선인이 철도원이 되더라도 급여는 일본인의 52% 수준이었으며, 승진도 어려웠다. 실례로 1943년 철도국 직원 수 27,927명 중에서 조선인은 9,123명(32%)뿐이었다.

박람회와 전시회

: 일제의 놀이터가 된 황궁과 근대화의 선전

일제는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자신들의 근대화를 선전하고, 한국에서의 경제권 장악, 한국병합의 교두보 마련, 나날이 증대해가는 반일의식의 전환점 모색을 위해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1907년 ‘경성박람회’, 1915년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1923년 ‘조선수산공진회’와 ‘전국특산물 진열대회’, 1924년 ‘조선축산공진회’, 1929년 ‘시정20년 기념 조선박람회’ 등인데, 일종의 일본 제국주의 선전장이었다. 경성박람회(1907.9.1~11.15)는 대한제국의 경제에 일본 자본이 들어오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고, 한국인들에게 한일 간 산업발달의 우열상을 전시함으로써 통감부시기에 일제가 한일병탄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의 양위가 추진되고 의병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래 식민지 지배 5년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경복궁에서 일종의 박람회인 ‘조선물산공진회(1915.9.11~10.31)’를 개최했는데, 이것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홍보하기 위한 획책의 하나였다. 당시 공진회 기간 중에 방문자 수는 1,164,38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현지에서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조선을 방문하였는데,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진회로 인해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은 다수의 건물들이 훼손되었고, 이후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등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왕궁은 일제의 선전장과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조선의 풍광' 엽서 봉투 - 6매 세트



'조선의 풍경' 엽서 봉투 - 6매 세트



1907년 경성박람회 입구와 미술관



1915년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정문 입구의 관람객(황희문)

조선의 기생과 가요

: 기생, 일본 제국주의의 에로티시즘적 시선

기생은 비록 천민이었지만, 매우 활동적인 여성들인 동시에 전통문화의 계승자였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의기나 의료에 종사한 의녀들도 있었으며, 우리 문학사에 적지 않게 공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오자 기생들은 몸을 파는 창기들과 동일시되었고, 사회적 통제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약 15년간 경성에서 생활을 한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의 『기생이야기(妓生物語)』(1932)를 보면, 그는 기생들을 ‘조선 에로계의 침단’, ‘선천적인 매력’을 무기로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일종의 ‘작부’로 인식하고 있는데, 제국주의의 우월적 시선에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편, 가요 관련 엽서에서는 ‘조선정시(朝鮮情詩)’나 조선 동요·가요, ‘아리랑 엽서’, 백두산절, 압록강절 등의 각종 노래 등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그려진 그림 도안은 조선의 민속과 풍속, 자연과 풍경, 대표적 건축물, 기생 등의 사진과 그림이 사용되고 있다.

금강산

: 유희와 위락의 관광지로 바뀐 금강산

한국에서 근대 관광의 탄생은 일제의 침략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전국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관광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고, 1920년대의 보편화를 거치면서 전국 곳곳의 유명 사찰이나 온천, 아름답고 뛰어난 절경이나 산악은 거의 대부분 관광지화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금강산이다. 이와 동시에 금강산은 내부 깊숙한 경승지까지 모두 드러내고 탐승이라는 명목 아래 일제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1919년에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고, 관광이 늘어나자 이와 관련된 상품, 즉 사진그림엽서, 사진첩, 안내책자 등도 대량 판매되기 시작했다. 특히, 금강산 관련 사진그림엽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대표적인 소재로서 내금강, 외금강, 주변 사찰을 소재로 삼았으며, 대략 8매 1세트의 엽서로 제작되어 판매되었다.



내금강산 엽서 - 내금강 망군대(파노라마 2매 엽서)



경성 명월관 엽서 - 기생들의 공연



가요의 조선 엽서 - 금강산 구룡연과 빨래하는 여인들



외금강 구룡연 엽서 - 외금강에 위치한 신계사(神溪寺)



금강산 엽서 - 해금강의 기승(임석리)